

전주 동완산동, 새뜰마을 사업 선정

시, 노후주거지 일원에 2024년까지 총 43억원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다양한 주민활동 지원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일원이 살기 좋은 마을로 되살아난다.

전주시는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대상 지역에 동완산동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

고 4일 밝혔다. 팔복동 추천마을과 풍남동 승안마을, 진북동 도토리골, 남노송동 마당재에 이은 전주지역 5번째 선정으로, 전주시와 김윤덕 국회의원,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다.

동완산동 일원은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거주자의 18%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게다가 경사가 심한 4m 이하 좁은 골목길 등으로 이뤄져 있어 주민들의 보행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동완산동 노후주거지 일원에 오는 2024년까지 국비 30억원 등 총 43억원을 투입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정비 ▲재해예방 및 도로 정비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돌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시는 또 골목길을 중심으로 보안등과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빗물이용시설과 연계한 빗발을 운영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시는 이번 동완산동 새뜰마을 사업과 함께 완산철보 한빛마루 공원 조성사업과 완산방커 1973 사업이 추진되면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팔복동 추천마을(총사업비 7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풍남동 승안마을(43억원), 2019년 진북동 도토리골(43억원), 2020년 남노송동 마당재(43억원) 등 4개 지역에서 새뜰마을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번에 선정된 동완산동을 포함하면 총 사업비 규모는 241억원(국비 170억원)이다.

새뜰마을이란 주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사업의 취지를 함축한 말로, '마을주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명칭으로 마을을 새롭게 정비해 희망을 가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균형발전을 위해 취약지역을 대상으



최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1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뜰마을 사업)' 대상 지역에 전주시 동완산동 일원이 최종 선정됐다.(사업 위치도)

로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뜰마을 사업을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올해 선정된 동완산동 권역에서도 역동적

인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열차 이용 추위 달랠 탄소발열의자

전주시, 1500만원 투입 전주역 상·하행 플랫폼에 6개 설치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이 오가는 전주역에 따끈따끈한 발열의자가 설치됐다.

전주시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0만원을 투입해 전주역 상·하행 플랫폼에 탄소발열의자 6개를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

탄소발열의자는 고효율 탄소소재 발열체가 내장돼 소량의 전기로 높은 온도를 열을 낼 수 있어 야외 플랫폼에서 대기하는 열차 이용객들의 추위를 달래주는 이점이 있다.

전주역은 매일 7,000여 명이 넘는 시민과 여행객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중심인 만큼 탄소발열의자가

따뜻한 도시이미지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시는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승강장에도 발열의자와 에어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강준 전주시 시민교통본부장은 "전주를 방문하고 돌아가시는 관광객들과 타지로 이동하는 전주시민들께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드리고자 발열의자를 설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덕진구, 해빙기 도로 일제정비

포트홀·도로 균열 상태 조사해 긴급 보수 추진키로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해빙기를 맞아 도로 균열 및 포트홀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1,672개 노선, 437km의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도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도로가 지난겨울 뿌린 염화칼슘으로 약해진 데다 최근 날씨가 포근해지고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포트홀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덕진구는 5개소 15명의 순찰조를 편성해 간선도로에 생긴 포트홀과 도로균열 상태를 조사하고, 동 주민센터 협조를 받아 이면도로에 발생한 포트홀까지 일제조사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구는 조사 결과 현장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즉시 보수하고, 대형건설장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업체를 통해 당일 조치하기로 했다.

특히 다음 달 말까지 2개소 12명으로 구성된 포트홀 응급복구반을 상시 운영해 긴급보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5월 말까지 총 10억원을 들여 도로균열이 심해 포트홀이 많이 발생하는 백제대로와 동부대로, 안덕원로, 초포다리 등 주요 간선도로와 외룡로, 아중로 등 이면도로에서 재포장 공사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신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전주시 덕진구, 내달까지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위해

전주시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과 벽보 등을 제거한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병호)는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까지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인근 도로와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주요 정비 대상은 불법으로 설치된 ▲에어라이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훼손된 간판이다.

구는 특히 예코시티와 혁신도시, 만성지구 등 신도시 일원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해 음란·퇴폐적 내용 등이 담긴 청소년 유해 광고물의 경우 즉시 폐기 처분키로 했다.

또한, 청소년 유해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구는 불법광고물로부터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오는 4월까지 가로등주와 신호등주 등 도로변 시설 500여 개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를 설치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현수막과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 시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수거보상제도 추진할 예정이다.

장병호 구청장은 "새 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로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를 통해 안전한 통학환경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생경제 살리기 릴레이 간담회

전주시, 소상공인·운수종사자·예술인 등 분야별 애로사항 청취

전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을 돕기 위해 분야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미용사회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전북택시운송사업조합, 전북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예술인들은 예술인 지원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 하며, 비대면 콘텐츠 플랫폼 역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시는 예술인 복지정책 토론회와 예술인 사회연대 협의회의 의의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당장은 내년까지 공연스튜디오, 비대면 공연장 등이 포함된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유미용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달라거나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택시 전액관리제를 유예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 분야 현장전문가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 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해 최대한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위기업종을 돕기 위해 모든 영업종과 산업용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전세버스·법인택시·관광업체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에게 전주형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으로 업계의 손실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막고자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